

베트남 고전의 활용: <취교전, Truyen Kiêu>을 중심으로

장 진

<취교전>은 베트남이 낳은 대문호 완유(阮攸, Nguyễn Du, 1776-1820)에 의하여 창작된 6·8구체 형식의 소설이다. <취교전>은 여자 주인공 취교(翠翹, Thuý Kiêu)의 파란만장한 사랑 이야기이지만 '재명사상', '효도 사상', '권선징악', '인과응보'와 같이 인간사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 또한 표현이 매우 시적이고 인물을 매우 사실적이며 생동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어 베트남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베트남인들은 <취교전>의 많은 구절을 암송할 수 있으며, <취교전>을 인용하여 공감을 얻는 것이 매우 익숙하다. 어려서부터 <취교전>을 듣고 말하며, 각급 학교과정에서 이를 학습했기에 베트남인의 생각에서 <취교전>의 흔적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자신의 운명이 마치 그 안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베트남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작품이다. 심지어 설날에는 <취교전>으로 운명을 점치는 '끼에우점'이 있을 정도이다. 그렇기에 베트남인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 베트남의 정치인과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 정상들은 <취교전>을 인용하곤 한다.

1992년 수교이후 한국과 베트남간의 경제교류 및 인적교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양국 간의 관계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여 진정한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트남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아가는 노력일 것이다. 문화에 깊은 이해는 그 첫 단계가 될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과의 문화교류는 매우 일방적인 흐름만 있을 뿐이며 아직 충분치 않은 학문적인 성과조차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취교전>이 베트남인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 외국정상들의 연설문에 나타난 <취교전> 인용사례를 통하여 베트남 문화활용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

장 진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트남 마케팅연구소장으로 재직중이다. <대베트남 한국투자진출기업의 공장부지 결정요인>을 주제로 목원대학교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베트남 호치민무역관에 2회(2009년, 2017년) 파견근무를 하였다. KOTRA 아카데미에서 베트남 전담교수로 활동 중에 있으며, 베트남 진출기업 및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Date & Time: November 1, 2022. 12:00-13:00

Place: SNUAC Asia Square (3rd Floor)